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육과 표현활동 비교 연구\*

이정연\*\* · 유영임\*\*\*

I. 서론

II. 연구의 방법

III. 체육과 교육과정 표현영역 특징 및 비교 분석

I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2022년 12월 22일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개정되었다. 해당 교육과정은 불확실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디지털·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법 및 평가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22).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며 학생들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맞는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설계·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또, 학교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하여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이 능동적이고 즐거운 학습 경험이 되도록 설계 운영한다. 교과와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학습 활동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한다(교육부, 2022).

이에 체육과 표현활동 역시 총론의 방향에 따라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체육교과의 가장 큰 변화로서는 영역의 재편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의 5개 영역이 운동, 스포츠, 표현의 3개 영역으로 재편성됨과 동시에 총론적 차원, 교수방법적 차원, 교사 전문성의 차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맥락으로 수행된 박혜연(2023)의 연구에서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학교무용교육의 변화를 4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요약해 보면, 첫째, 5대 영역에서 3대 영역으로의 체계의 변화와 아울러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채택으로 학교무용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둘째, 목표의 변화로 '포용성, 주도성, 창의성'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전인교

\* 본 연구는 2023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교과교육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됨

\*\* 주저자,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위례초등학교 교사, serahope@naver.com

육으로서의 무용교육으로 재전환되었다. 셋째, 내용의 변화로 ‘이해, 수행, 창작, 감상’의 무용 총체성을 지향하고, 교육내용으로서의 ‘무용양식’이 확대되었다. 넷째, 방법의 변화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지향적인 시도와 ‘통합적 체험 및 수준’의 다각화를 지향한다.

이와 더불어 이강순(2023)은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표현 영역의 신체활동 내용과 예시를 탐색하며 리듬을 기초로 하기, 표현 활동 영역 제자리 찾기 및 확대, 무용소양 함양하기를 제안하였다. 탁지현(2022)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학교무용교육의 변화와 과제를 살펴보고 ‘예술로서의 무용 교과 독립’ 등 미래 학교무용교육의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박혜연(2023)은 학교무용교육의 변화와 실천적 교수모형을 탐색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학교무용교육의 4가지 변화를 제시한 바 있다. 김지안(2022)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무용교육을 위하여 기존 교과의 재구조화를 제안하였다. 이유리와 오세복(2022)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초등무용교육의 주요 과제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체육교과목 영역의 연계성을 말하였다. 이렇듯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등 무용교육학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를 담아내고 실천해야 하는 현장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미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교사들은 이전 교육과정과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변화되었거나 심화된 무용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훌륭한 비전이 실제 교실에서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식내용 인식과 교수방법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현장 적용을 위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한 교사들의 정확한 이해, 변화된 무용교육 내용에 대한 재교육, 미래지향적인 교수 방법에 대한 연수 또한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는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육과 표현활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육과 표현활동의 비교 분석에서 주목할 논의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체육과 표현활동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II. 연구의 방법

###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두 문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체육과 표현활동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부 고시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초중등학교 체육과 표현활동 관련 학술지에 수록된 다수의 연구물을 활용, 분석 및 논의로 객관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 2. 분석 절차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체육과 표현활동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각각의 교육과정 총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비교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분석의 타당성은 체육교육 전공 교수 3인, 석박사과정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의 검토를 통해 확보하였다.

## III. 체육과 교육과정 표현영역 특징 및 비교 분석

### 1. 교육과정 핵심 및 교과 영역의 변화와 특징

#### 가. 교육과정의 핵심 변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 미래를 위한 6가지 핵심역량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협력적소통 역량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김수영, 2023, p. 135) 새 교육과정은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반영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학습과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언어·수리력, 디지털·인공 지능 기초 소양 함양, 협력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구성되었다(교육부, 2022).

〈표 1〉 2015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교육부, 2022)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가. 개정의 방향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나. 추구하는 인간상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다. 핵심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라.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 ▶학습량의 적정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기르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자신의 학습과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언어·수리력, 디지털·인공 지능 기초 소양 함양 ▶협력과 공동체 의식 함양

## 나. 체육교과에서 표현활동 비중의 확대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육과의 가장 큰 변화는 영역의 변화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의 5가지 영역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운동, 스포츠, 표현의 3가지 영역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신체활동 가치 중심’에서 ‘신체활동 형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개정되었다(신원규, 한동수, 이주옥, 2023, p. 75).

표현활동이 3개의 큰 영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무용교육의 중요성을 외형적으로 공고히 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다양한 종목으로서의 무용을 포함하여 표현을 추구하는 기타 신체활동의 독특성과 중요성을 인정한 측면이기도 하다. 박혜연(2023)도 이 점에 있어서 ‘표현영역이 가시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며, 체육교과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의미 있는 변화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고등학교에서는 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예술교과군이 선택과목 중 하나인 ‘융합 및 진로’에 속하게 됨으로써(교육부, 2022)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무용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불문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선택 기회를 가시적으로나마 상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무용교육은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서 효율적이고도 질 높은 무용수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

## 2. 표현영역의 변화와 특징

### 가. 성격 및 목표 - ‘신체활동’에서 ‘신체활동 문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추구한다. 총론의 방향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육과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신체활동의 학습을 통해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삶,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 신체활동 문화를 향유하며 사회속에서 바람직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자질을 길러주는 교과이다(교육부, 2022).”

무용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신체활동역량’에서는 다소 큰 변화가 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현활동에 맞는 ‘신체 표현 능력’에 해당하는 역량이 단독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예술교과로서의 무용교육에 관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움직임 수행 역량’, ‘건강 관리 역량’, ‘신체활동 문화 향유 역량’ 등 운동과 스포츠 전반을 포함하는 신체활동역량이 제시되었다. 체육과의 목표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신체 표현을 통한 심미적 안목 갖기’의 하위 목표가 명시되어 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신체활동 문화’로 폭넓게 기술되어 있고, 심미적 또는 예술적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용 영역별 목표 진술에서 신체활동 역량 중심 목표 진술로 변화되었다.

신체표현을 통한 심미적 체험을 통한 예술성의 발휘는 무용교과에서만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표현활동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영역에서도 피겨스케이팅, 체조, 아티스틱스위밍, 브레이크킹 등 스포츠 표현 종목은 무용교육의 기반이 필수적이다. 이전까지의 교육과정에 있던 ‘심미성’, ‘예술성’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제외된 점은 매우 아쉽다. 오늘날 스포츠 속에는 예술이 이미 연출되고

있다. 스포츠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실내 수영장이나 체조장, 혹은 필드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음악에 맞추어 연출되는 스포츠에 관심이 환호하는 것은 움직임보다는 예술에 더 가까운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김미숙, 1998). 2017년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은 ‘아티스틱스스위밍’ 인 ‘예술수영’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예술영역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 종목은 스포츠이면서 안무가 필요하고, 안무가에 의해 창작된 작품은 스포츠 기술과 함께 탁월함을 실현하게 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무용의 미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경희, 최은정, 2021). 이는 피겨스케이팅과 2024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크딩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에서의 예술성교육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체육교과의 표현활동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신체활동역량과 목표에서는 ‘문화의 향유’의 큰 영역에서 ‘심미성’과 ‘예술성’이 희석되어 있어, 표현활동의 가치가 약해 보인다. 이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수 학습 방법론에서 심미적 체험과 예술성의 성취를 강조하여 그 중요성을 계속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표 2〉 2015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비교(교육부, 2022)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방향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성격	▶체육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 및 운동 능력을 비롯한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이 삶을 개척하고 체육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이다.	▶체육과는 신체활동의 학습을 통해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삶,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 신체활동 문화를 향유하며 사회 속에서 바람직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자질을 길러주는 교과이다. ▶경기 문화, 놀이 및 여가 문화, 표현 문화, 정신 문화, 건강 문화
신체 활동 역량	▶‘신체 표현 능력’은 신체와 움직임을 매개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수용하는 능력이다.	▶‘움직임 수행 역량’ ▶‘건강 관리 역량’ ▶‘신체활동 문화 향유 역량’
목표	체육 교과는 신체활동의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체육과의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전인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즉, 신체활동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미래의 삶을 개척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 건강의 가치를 이해하고 건강 및 체력을 증진하며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나. 도전의 가치를 이해하고 도전의 신체활동을 수행하며 도전 정신을 발휘한다. 다. 경쟁의 가치를 이해하고 경쟁의 신체활동을 수행하며 선의의 경쟁을 실천한다. 라. 표현의 가치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신체 표현을 수행하며 심미적 안목을 갖는다. 마. 실제활동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수행하며 안전 의식을 함양한다.	체육과는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삶,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 신체활동 문화를 향유하며 사회 속에서 바람직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활동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움직임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움직임의 목적과 환경에 적합하게 움직임 기술을 수행하며, 움직임 수행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실천한다. (2) 건강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을 증진 및 관리하며, 건강의 증진과 관리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실천한다. (3) 신체활동의 고유한 문화 특성을 이해하고, 신체활동 문화를 일상생활에서 누리며, 다양한 문화 양식에 내재한 가치와 태도를 실천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육과에서 눈에 띄는 용어는 ‘문화’이다. ‘경기 문화’, ‘놀이 및 여가 문화’, ‘표현 문화’, ‘정신 문화’, ‘건강 문화’라는 용어들이 등장하였고, 목표에는 ‘문화’가 여러 번 언급되었다. 체육과의 성격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신체활동은 인간이 신체와 관련된 고유한 문화를 향유하고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더불어 살도록 한다. 인류의 문명화 과정에서 신체활동문화는 신체적 수월성을 겨루는 경기 문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놀이 및 여가 문화, 신체적 움직임이 미적으로 승화된 표현 문화, 제도화된 신체활동에 내재한 정신 문화,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건강 문화 등 다양한 문화 양식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신체활동 문화는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며 책임 있고 협력적인 태도, 공정하고 호혜적인 관계와 더불어 생태환경과의 조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교육부, 2022, p. 5).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신체교육에서 신체문화교육으로’라는 사과의 확장을 견지하고 있다. 체육과는 학습자가 전 생애에 걸쳐 체력과 건강, 움직임에 대한 기능과 지식, 다양한 신체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길러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며, 신체활동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생활화하고, 타인 및 세계와 소통하며 바람직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부, 2022, p. 5~6). 학생 개인의 전인교육을 넘어서서 신체활동 문화는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며 책임 있고 협력적인 태도, 공정하고 호혜적인 관계와 더불어 생태환경과의 조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교육부, 2022, p.5).

무용 예술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용 및 체육교사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통해 질 높은 표현활동 수업을 행한다면 초·중등학교 공교육 안에서 무용을 향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실상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라는 표현은 너무 범위가 넓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추후 지도서나 교과서, 또는 연수를 통하여 교육과정 내의 문화의 의미를 강조하게 된 기초 및 변화의 방향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 나. 내용 체계

### 1) 내용 체계

내용 체계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 있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아이디어’로 변화하였다. 2015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새로 도입된 용어들인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등이 원래의 취지대로 구현되지 못하여(구원희, 2022, p. 853)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구성의 원리’를 신설하고 역량 함량을 위한 교과 교육에 대한 설계 방식, 교육과정 구성 요소들의 관계를 제시하며, ‘핵심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교육부, 2021; 김수영, 2023, p. 136).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육과의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는 ‘운동’, ‘스포츠’, ‘표현’이라는 신체활동 형식

의 개인적, 사회적 가치, 활동의 원리와 맥락, 실천 및 활용 방식에 따라 설정되었다. 체육과에서의 ‘표현’은 생각과 감정의 심미적이고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교육부, 2022, p. 4).

〈표 3〉 2015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 비교(교육부, 2022)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 개념> ▶ 표현 의미 ▶ 표현 양식 ▶ 표현 창작 ▶ 감상·비평	<일반화된 지식> ▶ 인간은 신체 표현으로 느낌이나 생각을 나타내며, 감성적으로 소통한다. ▶ 신체 표현은 움직임 요소에 바탕을 둔 모방이나 창작을 통해 이루어진다. ▶ 심미적 안목은 상상력, 심미성,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신체 표현의 창작과 감상으로 발달된다.	<핵심 아이디어> ▶ 표현 활동은 인간이 신체 움직임에 생각과 감정을 담아 심미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고, 예술적 신체활동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 표현 활동은 기본 움직임에 표현 원리가 적용되어 다양한 유형으로 구현되며, 구성 및 창작의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 ▶ 인간은 다양한 표현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움직임의 심미적 가치를 내면화하며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한다.

다음의 〈표 4〉를 살펴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신체표현활동의 내용 체계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3,4학년에서는 움직임 표현, 리듬 표현을 초등 5,6학년에서는 민속 표현, 주제 표현을 다루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스포츠 표현, 전통 표현, 현대 표현으로 춤의 내용별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두 표현활동과 움직임 표현을 다루되 학년군별로 심화된 활동으로 배우도록 구성되었다. 이후에 성취기준과 함께 제시된 신체활동 예시에서는 초등3,4학년에서는 기본 움직임 표현을 다루고, 초등5,6학년과 중학교에서는 전통 표현, 스포츠 표현, 현대 표현을 배우도록 제시하고 있다. 초등3,4학년의 리듬 표현은 활동 내용체계로 축소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살펴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 아이디어에 ‘감상과 비평’이 제외되었다. 〈표 4〉의 내용 요소에서도 초등과정에서는 감상이 없고, 중등학교에서만 감상과 비평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기는 미적 감각과 창의적 표현의 기초를 형성 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춤을 비평적인 눈으로 보고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비평적 감상(Critical appreciation)이란 유아가 예술작품을 즐기고 경험하며 미적 가치를 판단하여 미적 지각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비평적 감상은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판단과 정서적 측면을 연결해주는 역할(Anderson, 1986)을 하기 때문에 유아기부터 필요한 경험이다(최재원, 2008, p. 3). 2022 개정 교육과정 신체표현활동 내용요소에서 비평과 감상이 없어진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비평적인 감상활동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친구들의 움직임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영상의 춤이 마음에 드나요?’ ‘춤추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음악과 동작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나요?’ ‘친구들의 동작에서 잘한 점을 말해볼까요?’ 등의 쉬운 언어로 비평적 감상을 초등 저학년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이런 언어적 표현은 더 풍성한 춤으로 연결된다.

〈표 4〉 2015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비교(교육부, 2022)

내용 체계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초 3~4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움직임을 표현의 의미</li> <li>▶ 움직임을 표현의 기본 동작</li> <li>▶ 움직임을 표현의 구성 방법</li> <li>▶ 신체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듬 표현의 의미</li> <li>▶ 리듬 표현의 기본 동작</li> <li>▶ 리듬 표현의 구성 방법</li> <li>▶ 민감성</li> </ul>	지식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 활동과 움직임 기술</li> <li>▶ 기본 움직임 기술의 표현 방법</li> </ul>	
			과정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 활동의 움직임 기술 파악하고 시도하기</li> <li>▶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임을 표현하기</li> </ul>	
			가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움직임을 표현에 대한 호기심</li> <li>▶ 움직임을 표현에 대한 감수성</li> </ul>	
초 5~6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속 표현의 의미</li> <li>▶ 민속 표현의 기본 동작</li> <li>▶ 민속 표현의 구성 방법</li> <li>▶ 개방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표현의 의미</li> <li>▶ 주제 표현의 기본 동작</li> <li>▶ 주제 표현의 구성 방법</li> <li>▶ 독창성</li> </ul>	지식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 활동의 유형</li> <li>▶ 표현 활동의 유형별 움직임 기술 응용 방법</li> <li>▶ 표현 활동의 유형별 움직임 기술 구성</li> </ul>	
			과정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 활동의 유형 파악하기</li> <li>▶ 표현 활동의 유형별 움직임 기술 응용 방법 활용하기</li> <li>▶ 표현 활동의 유형별 움직임 기술 구성하고 발표하기</li> </ul>	
			가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표현 활동 유형에 대한 수용적 태도</li> <li>▶ 움직임을 표현의 심미성 추구</li> </ul>	
중 1~3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 표현의 역사와 특성</li> <li>▶ 스포츠 표현의 표현 동작과 원리</li> <li>▶ 스포츠 표현의 수행과 창작</li> <li>▶ 심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표현의 역사와 특성</li> <li>▶ 전통 표현의 표현 동작과 원리</li> <li>▶ 전통 표현의 수행</li> <li>▶ 공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 표현의 역사와 특성</li> <li>▶ 현대 표현의 표현 동작과 원리</li> <li>▶ 현대 표현의 수행과 창작</li> <li>▶ 비판적 사고</li> </ul>	지식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 활동의 역사와 특성</li> <li>▶ 표현 활동의 동작과 표현 원리</li> <li>▶ 표현 활동의 창작과 감상</li> </ul>
				과정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 활동의 유형별 역사와 특성</li> <li>▶ 표현 활동의 유형별 동작 표현하기</li> <li>▶ 표현 활동의 유형별 원리 적용하기</li> <li>▶ 표현 활동의 유형별 작품 창작하고 감상하기</li> </ul>
				가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현의 독창성</li> <li>▶ 다양한 표현 활동에 대한 개방성</li> <li>▶ 예술적 표현에 대한 공감과 비평의식</li> </ul>
〈기능〉					
▶ 탐구하기 ▶ 신체 표현하기 ▶ 감상하기 ▶ 의사소통하기					

## 2) 신체활동 예시

〈표 5〉를 살펴보면 2022 교육과정에서는 신체활동 예시가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3~4학년의 리듬 표현은 학년군의 활동명 대신 활동 내용 체계로 축소되었으며, 기본 움직임을 기초 표현과 표현 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예시를 들었다. 또, 초등 5,6학년은 실용 무용 대신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스트리트댄스 활동 등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고, 중학교 전통 표현에서는 춘앵무, 향발무, 처용무 등 궁중 무용까지 추가하였다. 덧붙여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다른 점은 성취 기준 해설이 추가된 점인데, 이는 관련한 해당 성취기준의 설정 취지 및 의미, 학습 의도 등을 설명하고 있다.



〈표 5〉 2015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신체활동 예시 비교(교육부, 2022)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초 3~4 학년	(가) 움직임 표현	▶ 움직임 언어(이동 움직임, 비이동 움직임, 조작 움직임을 활용한 표현 활동, 표현 요소(신체, 노력, 공간, 관계 등)를 활용한 표현 활동 등	기본 움직임의 기초 표현	▶ 이동 움직임 표현(워킹, 점핑, 호핑, 스키핑, 깎리핑, 리핑, 슬라이딩 등) ▶ 비이동 움직임 표현(펴기, 접기, 비틀기, 제자리 돌기, 털기, 흔들기 등) ▶ 조작 움직임 표현(들기, 돌리기 등)
	(나) 리듬 표현	▶ 공 체조, 리본 체조, 후프 체조, 음악 줄넘기, 율동 등	기본 움직임의 표현 방법	▶ 추상 표현(언어 표현, 느낌이나 생각 표현하기 등) ▶ 모방 표현(사물 표현, 인물 표현, 자연 현상 표현하기 등) ▶ 리듬 표현(박자, 강약, 빠르기, 패턴에 따라 표현하기 등) ▶ 도구 표현(줄, 공, 천, 홀라후프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등)
초 5~6 학년	(가) 민속 표현	▶ 우리나라의 민속 무용 (강강술래, 탈춤 등) ▶ 외국의 민속 무용 (티니클링, 구스타프 스킨, 마임 등)	전통 표현 활동	▶ 우리나라의 민속무용 활동, 외국의 민속무용 활동 등
	(나) 주제 표현	▶ 창작무용, 창작체조, 실용 무용 등	스포츠 표현 활동  현대 표현 활동	▶ 창작체조 활동, 음악줄넘기 활동 등  ▶ 라인댄스 활동, 댄스스포츠 활동, 스트리트댄스 활동 등
중 1~3 학년	(가) 스포츠 표현	▶ 창작체조, 리듬체조, 음악줄넘기, 피겨스케이팅,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스포츠 표현	▶ 창작체조, 치어리딩, 리듬체조, 피겨스케이팅, 아티스틱스위밍 등
	(나) 전통 표현	▶ 우리나라의 민속무용, 외국의 민속무용 등	전통 표현	▶ 민속 무용(탈춤, 농악무, 사자춤, 코로브시키, 플라멩코 등) ▶ 궁중무용(춘앵무, 향발무, 처용무, 발레 등)
	현대 표현	▶ 현대 무용,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재즈댄스, 힙합 댄스 등	현대 표현	▶ 현대 무용,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스트리트댄스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리듬 표현’은 4학년 활동명을 대표하는 체계였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 활동 내용의 하나로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리듬표현에서 강조해온 ‘체조’로서의 강한 의미와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리듬체조와 리듬표현이 같은 의미라는 인식에 대한 개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는 여기에 관한 충분한 논의나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움직임 양식으로서의 체조가 조작 움직임, 또는 도구 표현으로 흡수된 듯한 상황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오해가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사실상 ‘후프’와 ‘리본’ 등 ‘체조’로 인식되어 온 활동은 초등 현장에서 체육 전담교사가 아니어도 담임교사에 의해서도 잘 지도되고 있는 활동 중 하나이다. 움직임의 단순함 뿐 아니라, 교구 활용으로서의 수월성, 기존의 지도 자료의 충분한 확보 등 초등 교사들의 접근이 손쉬워 다른 표현활동에 비해 활발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움직임으로서의 체조가

그 장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하고, 심미성과 창의성이 발현 가능한 구체적 제시를 통해 교과서 및 지도서 개발을 추구해야 한다.

현대 표현활동에서 살펴보면 ‘스트리트 댄스’는 새 교육과정에 초등5, 6학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춤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실용 무용’, ‘힙합 댄스’를 대신하여 ‘스트리트 댄스’가 제시되었다. 이는 현재의 춤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그 중요도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대중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춤이라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에 포함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방과후교육도 아닌 공교육의 교육과정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지 또, 전인교육을 위한 알맞은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활동인지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2015 중학교 과정 내용 요소에 있던 ‘댄스스포츠’와 ‘라인댄스’는 초등 5, 6학년으로 내려 왔으며 ‘재즈댄스’는 생략되었다.

중학교 전통 표현 활동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분류의 체계가 변화하였고 내용이 확대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속무용으로 나뉘어 있으나, 중학교에서는 민속무용과 궁중무용으로 분류하였다. 민속무용에는 탈춤, 농악부, 사자춤, 코로브시카, 플라멩고 등이며 궁중무용에는 춘앵무, 향발무, 처용무, 발레 등으로 초등과 다르게 분류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통 표현 활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하여 예시 내용이 많아졌고 춤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지도에 있어서의 난맥이 우려되기도 한다. 우리 전통 궁중무용을 자세히 명시한 것은 전통 문화 예술 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나 중학교 체육 교사의 입장에서는 지도에 있어서의 부담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다양한 활동에서 가운데 교사와 학생의 선택을 통해 지도, 학습될 것이지만 제시된 활동에 대한 친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 개인의 노력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통춤 관련 교사연수, 접근 용이한 춤 교육활동 인터넷 서비스 등 다방면에서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체육과 표현활동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현장에서 질 높은 무용수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부 고시 자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비교,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2022 개정교육과정 체육과 표현영역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체육과에서 ‘표현교육 비중의 확대’이다. 기존의 5대 영역을 축소하여 운동, 스포츠, 표현 3대 영역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표현은 외견상으로도 그 중요도를 공고히 하였다. 아울러 표현 내용요소의 양적 증가,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써 무용과목 채택 등 체육과에서 표현교육이 중요도가 커졌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신체교육에서 신체문화교육으로’라는 사고의 확장을 견지하고 있다. 학생 개인의 전인교육을 넘어서서 신체활동 문화는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며 책임 있고 협력적인 태도, 공정하고 호혜적인 관계와 더불어 생태환경과의 조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22). 셋째,

‘다양성과 수용성’의 신체표현교육이다. 스포츠 표현에 대한 확대된 인식, 새로운 현대 춤에 대한 수용, 세계 시민으로서 다른 나라 전통 예술에 대한 포용, 다른 교과와의 통합에 대한 개방성, 타 예술과의 접목과 통합,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변화를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삶에 접목되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 무용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사 전문성, 교수방법 두 가지의 맥락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학교 교사들은 다른 영역에 비해 표현활동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시수, 공간, 인식과 같은 제도적, 물리적, 환경적 측면에서 제약을 겪고 있고, 중등학교에서는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점을 느낀다(홍애령, 2019). 조정화(2022)는 표현활동으로서 민속무용 체육수업의 문제점으로 ‘민속무용 교육의 낮은 인식도, 민속무용 수업의 시수 확보, 체육교사들의 전문성 부재, 평가의 모호성으로 인한 회피’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교육청 등 교육 및 예술 공공기관에서는 무용 교사들을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둘째, 무용교육 연구자, 학자 등 전문가들은 현장 연구를 통하여 현장의 문제점 인식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2022개정교육과정 체육과 표현활동 무용 내용체계에서 예시로 제시된 활동들의 수업 자료를 점검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교육을 위한 무용 작품을 창작 개발하여 교사에게 전수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장의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성찰과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롭게 추가된 무용 내용 요소에 대하여 탐구하고 익힘으로써 변화된 수업에 적극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세 주체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교사들의 무용 수업 전문성인 무용교수지식(무용지식, 과학적 지식, 교육적 지식, 인문적 지식), 교수방법(교수체계, 전달력, 이해의 맥락, 지식기반), 예술적 소양(구성력, 표현력, 의미와 해석), 인성적 자질(교육적 신념, 멘토링, 소통관계) 등(김지영, 주형철, 2013, p. 37)을 함양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교는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하여 운영한다. 둘째,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하여 운영한다. 셋째,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학습 활동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한다(교육부, 2022). 체육과 교수 학습의 방향으로는 신체활동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움직임의 체계적 발달을 위한 교수·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맞춤형 교수·학습, 신체활동의 시간적·공간적 확장을 위한 교수·학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교수·학습,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 등 6가지를 제시하였다(교육부, 2022).

본 연구를 통해 신체표현활동의 교수·학습의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 발휘, 통합예술적 시도, 디지털 기술 및 다양한 매체의 활용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표현활동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이 각자 발휘되어야 한다. 교사는 자신의 역량과 장점을 살려 선택과 집중의 과정을 통해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교육과정 내용에 제시된 모든 내용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표현 활동은 인간이 신체 움직임에 생각과 감정을 담아 심미적으로 표현하

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고, 예술적 신체활동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부, 2022, p. 9). 이러한 심미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고 경험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이강순, 2023). 교사는 여러 내용과 방법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심미적 체험을 경험하도록 수업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배움의 내용과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원하는 춤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유튜브 등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등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도 있다. 자기주도학습이란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며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오상철, 이문복, 2009, p. 110). 학생주도학습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적합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미래 삶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박형근, 2012). 학생주도의 학습에서 교사는 노련한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예술통합 수업의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김정하와 박현옥(2012)은 예술통합교육이 감각현상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여러 감각작용들의 발휘는 인식을 통합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자유로운 표현과 상상력을 키우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또 예술통합교육·무용은 자신의 생각과 내면의 감정을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신체를 이용한 표현은 미적 표현의 능력을 길러주며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 교육적인 면에서 적용하는데 유용하며 활용 범위 또한 다양하다고 하였다. 예술통합교육·무용은 쓰기, 그리기, 춤추기 등을 통해 각 예술장르를 체험하고 이해하며 각 문화의 사회적 상징들을 예술교과를 통해 체험함으로써 사고능력과 감성적 능력이 조화로운 통합적 인간을 형성한다(김정하, 박현옥, 2012, p. 374).

셋째,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디지털 도구, 매체, 소프트웨어, 영상 자료 등의 기술은 교수 학습 및 평가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교육부, 2022, p. 39).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은 신체표현 경험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습자는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학습할 수 있으며 온·오프 연계 디지털 기술 활용 수업은 신체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무용교육에서도 가상현실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하거나, 영상 제작이나 매체의 활용을 통해 신체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교육부(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 교육부(2022).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부.
- 김수영(2023).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의 비교 분석. *교육과정개발연구*.
- 박형근(2012). 자기주도학습 교육방법론. 아트블루.
- 오상철, 이문복(2009). 중·고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고경희, 최은정(2021). 스포츠와 무용의 공존, 스포츠예술 탐색:아티스틱스위밍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학회지*, 19(4), 404-414.
- 구원희(2022). 2015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분석에 기반한 2022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구성 방안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7), 845-870.
- 김경미(2023).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무용교육 내용 체계 분석. *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 23(3), 67-79.
- 김경미, 이유리(2022). 초등교사의 무용 수업 경험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 22(2), 55-63.
- 김미숙(1998). 스포츠 예술성에 관한 교육적 의의. *한국체육철학회지*, 6(2), 187-220.
- 김정하, 박현옥(2012). 예술통합교육·무용이 초등학생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상과 문화*, 62, 369-392.
- 김정희, 이강순(2018).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중 '표현' 영역의 변천과 개선 방향 탐색.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4(2), 95-108.
- 김지안(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 현장에 맞춘 무용 교과의 설계 및 선택수요 확산의 방안. *문화예술융합연구*, 3(2), 61-72.
- 김지영, 주형철(2013). 무용교육자의 전문성 구성요인 탐색 및 검증. *대한무용학회*, 71(5), 23-42.
- 김지영, 김형남, 윤정은(2015). 문화예술정책의 맥락에서 '일상생활 속 무용의 확산':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융성의 방안 모색. *한국체육학회지*, 54(5), 69-41.
- 김지영, 하영미, 김은혜(2019). 문화다양성 담론의 무용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75(3), 37-56.
- 남선희(2022). 플립 러닝을 적용한 무용 수업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87(3), 15-26.
- 류재만, 이정연(2020). 국내외 교육과정에 반영된 초등학교 음악, 미술, 체육의 심미적 감성역량. *한국초등교육*, 31(4), 99-118.
- 박형란(2020). 체육교과 내 표현활동 관련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무용학회지*, 20(1), 167-178.
- 박혜연(2023). 초등교사의 표현활동 교수역량 함양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30(3), 81-100.
- 박혜연(2023). 학교무용교육의 변화와 실천적 교수모형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26(3), 149-167.
- 백영태, 전진아(2021). 초등학교 표현활동·무용 관련 연구경향과 과제. *예술교육연구*, 19(2), 347-364.

- 신원규, 한동수, 이주욱(2023). Bloom의 신 교육목표분류체계에 의한 2015와 2022 중학교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62(3), 71-85.
- 이강순(2023).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표현영역의 신체활동 내용과 예시 탐색. **교육논총**, 43(1), 25-39.
- 이유리, 오세복(2022). 2022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초등 무용교육의 주요 과제. **한국체육무용과학회지**, 2(2), 47-54.
- 조남규, 김유진(2018). 초등학교 체육 교육과정 중 무용 수업의 교과 분리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과학회지**, 35(2), 67-80.
- 최재원(2008). 비평적 감상과 창의적 표현을 통합한 유아 춤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효과.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탁지현(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학교 무용 교육의 변화와 과제. **한국무용과학회지**, 33(4), 21-39.
- 홍애령(2019). 초중등학교 체육교사의 표현활동 인식과 표현활동 교수전문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연구**, 23, 75-99.

논문투고일 2023. 11. 15.

심사일 2023. 12. 06.

심사완료일 2023. 12. 15.

## 2015 Revised Curriculum and 2022 Revised Curriculum Physical Education and Expressive Activities Comparative Study

Lee, Jeong-Yeon\* · Yoo, Young-im\*\*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Teacher, Weerye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understand the new curriculum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hysical education and expressive activitie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the 2022 revised curriculum, and to use it as basic data for high-quality dance classes. To this end, the Ministry of Education's notification data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the 2022 revised curriculum, and previous studies o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were compared and review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hysical education and expression areas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could be summarized into three points. First, it is 'expansion of the proportion of expressive education' in the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Second, it maintains the expansion of the idea of 'from physical education to physical culture education.' Third, it is physical expression education of 'diversity and acceptance'.

Keywords: 2022 Revised Curriculum(2022 개정 교육과정), 2015 Revised Curriculum(2015 개정 교육과정), physical expression activities(신체표현활동), physical education(체육), dance classes(무용수업)